

# 시총 1조달러 이상 기업 2개 보유국 = 한국과 미국분

KOSPI 8,229pt(+2.3%), KOSDAQ 1,133pt(-3.4%)

## 해외 사항

### 소비 둔화 우려에도 UBS가 마이크론 목표주가를 3배 상향한 이유

- 전일 미국 주식시장 S&P500, NASDAQ 모두 신고가 경신. 특히 마이크론 19.3% 급등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5.5% 상승 견인. UBS의 목표주가 3배 이상 상향한 보고서가 핵심. 1) AI가 메모리 산업의 사이클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판단 2) 장기공급계약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3) D램, NAND 공급부족 장기화 전망의 세 가지 핵심 논리. 샌디스크(+7.5%), WDC(+8.3%), 씨게이트(+4.1%) 등 스토리지 동반 강세. 5월 CB 소비자신뢰지수도 93.1로 예상치 소폭 상회. 다만, 고물가로 지출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 많아 소비 둔화 우려는 잔존. 그럼에도 현재의 AI Capex 주도 이익 성장은 과거 세트수요 증가(스마트폰, 팬데믹 등)에 따른 IT 이익 성장 시기와 본질적 차별화. 민간 소비 주도 이익 성장 아니라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적

## 수급

### 외국인 반도체 대형주 순매수 지속

- KRX KOSPI 현물 개인 +4,066억원, 외국인 -4,498억원 기관 +1,880억원 순매수. 내일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안 결정. 향후 5년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목표 비중과 운용 방향 결정하는 중요 회의. 올해 초 한시적으로 유예한 리밸런싱 조치 6월 종료 예정. 26년 연기금 수급상 순매도 지속. 국내 주식 목표 비율 상향 정도 확인 필요, 외국인 순매도 대폭 축소 및 반도체 순매수 2거래일 연속 지속된 가운데 환율 변동성 완화 여부 및 외국인 자금 재유입 가능성도 수급에 우호적 요인

## 시황

###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집어삼킨 시장.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 2개 보유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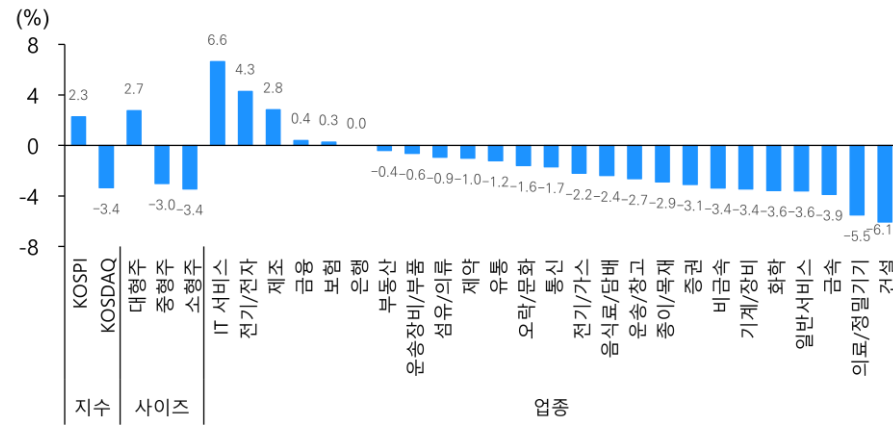
- 금일 KOSPI, KOSDAQ 각각 +2.3%, -3.4% 등락. 금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OSPI 지수 모두 신고가 경신. 연휴기간 미국 이란 갈등 완화되며 유가 하락 및 금리 안정화된 효과 지속. 엔비디아 실적 끝으로 실적 등 신규 모멘텀 부재한 가운데 전일 마이크론 급등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시총 상위 대형주 2개에 절대적으로 압축된 지수 상승 야기. 지수 신고가 경신에도 KOSPI 상승 종목 75개 Vs. 하락 종목 826개
- 마이크론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에 SK하이닉스도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전 세계에서 한 국가에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기업 2개 이상 존재하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시가총액 키맞추기 순환매 지속되는 상황. 다만 여전히 마이크론 대비 밸류에이션은 국내 대형주가 할인 받고 있는 상황. 유가와 금리 압력이 진정되고 실적 기대가 유지되는 한, 반도체와 AI 인프라, 산업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주도주 관심은 지속될 필요. 증권 같이 신고가 랠리 및 거래대금 고공행진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수혜 받을 수 있는데도 대형주 수급 블랙홀에 하락한 업종 등 관심도 유지해야할 전망

###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1,880	-5,518
외국인	-4,498	-849
개인	4,064	6,424
거래대금	558,408	151,950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